

# 개발정책에 사찰환경 '더 악화'

## 조계종 '대선 불교계공약 이행 촉구' 배경

### 내년총선·집권 1년반 지나 재평가 시기 "공약이행 가능성 희박"…대통령 결심 바래

12월 열리는 환경보존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불교계 공약사항의 이행도 촉구할 방침이어서 결의대회가 대정부 촉구대회의 성격도 띠고 있을 것을 명백히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결의대회 홍보자료집에 '대통령 불교계 공약과 그 이행 현황'을 별도로 넣었다.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사찰환경 침해, 성보문화재 도난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 관련 부처의 더딘 움직임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표와 문화재관리국의 분리정수 움직임도 조계종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같은 불만과 불관협회의 해소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것들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를 디그치기 보다는 이제는 공약을 평가해 김대중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내겠다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마침 16대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오고,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1년반을 넘은 시기에 이르렀다.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총무원을 방문, 당시 총무원장인 원주스님에게 불교계에 대해 10가지 공약

을 전달했다. 이 공약들은 당시 불교계의 현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조계종으로서 반갑고 환영할만한 내용이었다.

10가지 중 발간대장경 번역사업 지원만 순조로울 뿐 나머지는 "아직껏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거나 "전혀 지켜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조계종의 시각이다. 특히 사찰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약속해 놓고는 건축법을 개정해 오히려 사찰환경 침해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서운함 이상의 감정을 갖고 있다.

기획실장 만성수님은 "공약이 단순히 조계종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보전과 민족정신을 고취하려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러한 약속을 조계종이 대신해서 받아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총무원은 결의대회 홍보자료집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10가지 공약사항 이행 정도를 일일이 짚었다.

■편향없는 종교정책 실현: 김대중 대통령은 공공기관이나 군대 내에서 특정종교 편향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이를 공직자의 복무자세로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

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지속적인 지시와 강조가 없다면 이미 뿌리 내린 종교편향적인 사고는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령면장의 심청각 연등 철거, 김태복장군의 법당 건립을 뇌물수수로 몰아붙이는 등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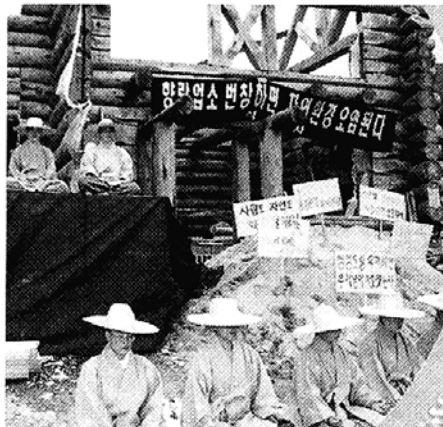
■불교관련법 제·개정: 전반적인 사찰환경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건축법 8조4항의 폐지로 사찰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되었다. 고도보존법 제정은 공약으로만 제시되었고 실제 입법 추진 과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찰환경 보전 종합대책 수립: 해인골프장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종단 유일의 종림선원이 있는 봉암사 인근의 스키장 조성공사 등 새롭게

발생한 사찰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으나, 정부여당 내 어디에서도 사찰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 8조4항 폐지에 따른 대체입법으로 전사법 개정안만이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다.

■문화재 보존: 문화재관리국이 청(廳)으로 승격되면서 문화유산 보존의 기초적인 틀을 구축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인사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주요 사찰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추진: 이 공약도 현실적인 검토나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찰에서의 성보문화재 도난 및 훼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발위주 정책으로 사찰의 수형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스님들이 석남사 앞 식당 및 상가 건물 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현 정부 집권 전부터 조계종과 함께 요구했던 것이다. 공원입장료를 폐지하지 않고 다시 분리징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북 불교교류 지원 확대: 민간부문의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활발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다.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처럼 정부 차원의 종교·문화 교류 지원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조계종은 김대중 대통령의 불교전통문화 복원 및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개국 지원에 앞서까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9월19일 평양의 조선불교도연맹 집결실에서 대표 회담을 갖는 진각종 성초 총무원장(오른쪽)과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

## 통일토론회 내년개최 합의

### 진각종 성초총무원장 방북의 결실

#### 국제불교성직자련 결성 보현사 대장경 공동 번역 필요성 공감 등 의견접근

진각종 성초 총무원장, 휴명 종의회의장, 회정 국제불교연구소장, 지현 진각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대표단 4인은 9월 18~25일 7박8일 동안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종단의 원장급으로는 최초의 공식 방북으로 눈길을 끈 진각종 방북단은 구월산 일제시대 성불사 보현사 등 7개 사찰을 참배하고 박태화위원장 등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과 두차례 회담하는 등 남북불교교류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북측에서 종단대표 초청이라는 점을 감안 각별한 예우를 해주었다고 전한 진각종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종단 차원은 물론 종단 협 차원에서의 교류 활성화에 불교를 트는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북에서 진각종과 조불련은 내년 상반기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한 불교도가 참여하는 통일토론회 공동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의 허가와 실무차원에서 좀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가시화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남북 불교도가 한자리에 통일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일은 단순한 만남에서 한걸음 나아가 일불제자로서 함께 통일원력을 다지고 공감

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개최 의미가 크다 하겠다.

또한 진각종은 이번 방북에서 버스를 기증하고 복지시설 건립을 제안하는 등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앞으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가속화 시켜나간다는 입장이다. 식용유 의복 등 북측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 지원이 아말로 교류 분위기를 성숙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판단이다. 또 진각종에서 제안한 '국제불교성직자련' 창설과 묘향산 보현사 소장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본 공동번역 사업 제안에 대해 조불련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불련은 평양 근교에 있고 있는 통일기념탑에 남북 불교계가 기념표석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성초 총무원장은 "보현사에 사막한 스님이 많이 늘었고 성불사 참배시 주지스님의 은사가 통도사 출신으로, 도반들이 남한에 밀로로서 견제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만나 보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하는 등 북한에 불교 뿌리가 아주 망가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며 "남북불교가 '한건주의'를 탈피해 만남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면 서로간에 신뢰가 쌓여 민족간의 동질성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이번 방북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 동국대 이사선임

### 총회서 처리 못하고 이사회로

#### 10월중 결정해야

동국대학교 이사 선임과 관련, 9월 13~17일 열렸던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이사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함에 따라 이사 선임은 동국대 이사회 손으로 넘어갔다. 총회 사무처장 영배스님은 "총회에서 추천동의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제는 이사회 의 소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동국대 법인사무처의 한 간부는 "총회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종립학원으로서 무시하지는 못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교육법에 따라 임기만료(11월 22일) 1개월 전에 교육부에 새 이사 취임 승인 신청을 해 조만간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동국학원 정관과 조계종의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르면, 이사 정원 13명 중 9명은 조계종 재적승려로 하며,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이사 등의 임원 후보를 선정해 중

양총회의 동의를 얻어 동국대에 복수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이사 후보로 선정한 12명은 녹원(현 이사장), 보광(해인사 주지), 현해(월정사 주지), 월서(호계원장), 벽파(현 이사), 종영(전 화엄사 주지), 정유(종회위원장), 장운(전통사 주지), 영배(총회사무처장), 현각(동국대 불교대학장),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범종(종회의원)스님 등이다. 이 가운데 정유, 장운, 범종, 성관 스님은 이사후보를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이사 선임과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며, 가장 설득력있는 전망은 이사회가 총회 내 총책연구모임인 육화회 청림회 일여회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안이다. 이에 따라 총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나, 이사후보로 선정된 녹원 벽파 보광 현해 월서 영배 현각 종영 스님과 봉선사주지스님, 임기만료되는 이사장 1명 등 10명 중에서 6명을 선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운 기자

민족감정의 분출을 매뚜기떼에 비유한 재미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보통 혼자 사는 매뚜기는 가을 등 위기가 닥치면 함께 모여 서로를 자극, 공격적인 무리를 이룬다. 드넓은 산하를 순식간에 황폐화시키는 그 매뚜기떼의 초(超)매뚜기적 위력은 이처럼 뭉치는 데서 나온다.

민족감정을 지닌 인간사회도 매뚜기떼나 다름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사회는 보다 복잡하다. 민족감정이 특정정권이나 종교, 권력 집단의 순수치 못 한 통기에 의해 부추겨지고 이용당하는 예가 적지 않은 것이다.

한국군이 유엔 다국적군 일원으로 파견된 나라, 동티모르의 경우,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그들의 본능적인 단결의 힘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인도네시아란 강대국(적어도 동티모르에겐 그렇다) 민족주의의 대응은 20여년간 20만명의 희생자를 낸 항거 뿐이었다. 민족과 종교가 다른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는 원래부터 화합하기 어려웠다.

민족, 종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남

자하게 피 흘리고 있는 곳이 어디 동티모르 뿐인가, 아니 지금 세계는 민족분쟁이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은 자유로운가, 지난 1백여년 이민사로 이제 전세계에 5백60여만명의 혈통적 한국인이 흩어져 살고 있다. 더러는 잘 살기도 하나 당사국의 민족분쟁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한 일간지는 중앙아시아 타지크에서 쫓겨난 카레이스키(고려인)들의 참상을 보도하고 있다. 집단으로 죽을 것도 없다는 그들은 호미 한자루 한 옷 한벌도 아꼴다 한다. 러시아 소수민족 중 한국정부가 동포들에게 가장 무심하며더 섭섭함을 털어놓기도 한다.

그것이 러시아의 고려인 뿐만이 아니라라는 점이 심각하다. 탈주 북한인들의 인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세계화라지만 아직 민족을 떠난 인간은 꿈과 이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딱한 통족의 처지를 외면하면서 인권을 운위할 자격이 있을까.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어 새삼 민족과 그 정체성을 생각해 한다.

김정자(칼럼니스트·본지 논설위원)

#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법회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수행과 포교의 정단인 법련사에서는 세 주지스님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불자님들과의 만남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수회 동참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 법련 불교대학

불교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불교대학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전 강좌**

- 기초반
  1. 내용 : 기초교리, 반야심경, 금강경
  2. 일시
    - 낮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저녁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3. 장소 : 법련사 2층 불일문화회관
  4. 대상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5. 기간 : 1년 (12개월)
  6. 강사 : 오경스님(법련사 주지)
  7. 동참금 : 5만원 (3개월분)
- 중급반
  1. 내용 : 불교사(인도, 중국), 원각경, 기신론
  2. 일시 : (2000년 1월 개강 예정)
- 고급반
  1. 내용 : 불교사(한국), 화엄경, 선어록
  2. 일시 : (2000년 4월 개강 예정)

### 일요 정기법회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시간이 없는 직장인 및 청·장년층을 위한 일요정기법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요일은 가족이 함께 동참하여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발원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언제나 정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선제초
  1.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법련사 2층 선방
  3. 강사 : 백문수화(동국대 사회교육원)
  4. 수강료 : 4만원 (2개월분)
- 시민선방
  1.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철야정진
  2. 장 소 : 법련사 2층 선방
  3. 대 상 : 참선에 관심 있는 모든 분
  4. 동참금 : 5만원 (3개월분)

## 서암 큰스님 초청 특별 대법회

법련사에서는 9월 초하루 기원법회에 서암 큰스님을 모시고 특별 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하시어 큰스님 법문을 통하여 부처님의 정법의 향기를 느끼고 삶의 지혜를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1999년 10월 9일(음력 9월 초하루) 오전 10시
- 2. 장소 : 법련사 3층 대웅보전
- 3. 법사 : 서암 큰스님(전 조계종 종정)

▶ 법련사 찾아오시는 길

경북길, 법련사, 안국동, 한국일보

승보종찰 조계종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문의전화 : 02)733-5322